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 평균점수 초 61.5점, 중 51.9점, 고 51.7점 기록 → 학교 경제교육 강화 추진

기획재정부는 '25. 2. 19(수) '24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학생들의 경제이해력 수준과 학교 경제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경제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20년부터 2년마다 실시해 왔으며, '24년 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102008호)로 지정된 첫 조사이다.

* '24.8~10월, 총 1.5만여 명 대상(초·중·고 학생 각 5천여 명),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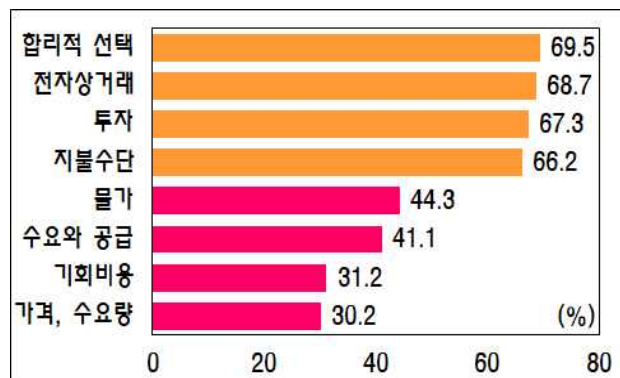
조사 결과, '24년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는 초등학생^{6학년} 61.5점, 중학생^{3학년} 51.9점, 고등학생^{2학년} 51.7점으로, 초등학생은 60점을 조금 웃돌았으나 중·고등학생의 경우 60점에 현저히 미달하여 학생들의 경제이해력 제고를 위한 경제교육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특별시·광역시(예: 서울, 대구, 세종 등)의 평균 점수가 광역도보다 대체로 높았으며, 문항별로는 합리적 선택, 전자상거래, 투자 등 실생활 관련 문항의 정답률은 높고, 물가, 수요·공급, 기회비용 등 경제 기본개념·원리 관련 정답률은 낮게 나타났다.

이해력 점수 상위 5개 지역

구 분	상위 5개 지역
초등학생	대구(68.6), 세종(66.9), 서울(64.9), 대전(64.6), 부산(64.0)
중 학 생	세종(60.7), 경북(56.6), 대구(55.4), 서울(55.2), 경남(54.6)
고등학생	부산(57.1), 울산(55.9), 세종(55.7), 대구(54.7), 경기(53.9)

문항별 정답률(중학생 기준)



또한, 경제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초·중학생은 주로 학교 수업을 통해 경제지식을 취득하고 고등학생은 주로 TV·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방식에 있어서는 초·중·고 학생 모두 강의식 교육보다 체험활동, 현장 견학 등 체험형 교육을 선호하였고, 교육 주제로는 경제 기본원리와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경제 수업 진행 시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60~70%에 달하고 주된 원인으로 자료수집 및 교수법의 어려움, 경제 이해도 부족 등을 꼽고 있으나, 실제 교사들의 경제 관련 직무연수 경험*은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 최근 3년간 직무연수 미이수 비율: 초등 교사 72.9%, 중등 교사 61%, 고등 교사 52.4%

이에 기획재정부는 학생들의 경제이해력을 증진하고 학교 경제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초·중·고 학생의 경제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늘봄학교를 통해 ‘25년 1만 명을 목표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생들 수요가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중등 자유학기제 경제활동과 고등학교 신규 경제 과목을 확대 및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체험식 경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태안 경제재정 교육원을 활용한 ‘경제캠프’를 신규 운영할 예정이다.

교사 양성, 경제교육 플랫폼 강화 등 경제교육 기반도 강화한다. 원격 연수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는 한편, 우수 수업사례 대면 연수 제공을 통해 교사들의 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최신 경제 흐름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들로 구성된 경제수업연구회 지원을 통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확산하는 한편, 경제교육 플랫폼인 ‘경제배움e+’와 유튜브·SNS 등 뉴미디어를 통해 학생들이 경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	책임자	팀 장	박해수	(044-215-2550)
		담당자	사무관	조선형	(044-215-2551)

- (목적) 학생들의 경제이해력과 경제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경제교육 현황 확인 및 경제교육 정책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근거)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짝수 연도에 초·중·고 학생 대상 조사 실시('24년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승인번호 제102008호)
 - * (경제교육지원법 제5조 제1항) 국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조사개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조사 진행
 - (표본) 초등학교 6학년 5,192명, 중학교 3학년 5,157명, 고등학교 2학년 5,105명* + 초·중·고 교사 각 250명(총 750명)
 - *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지역·학교급별 표본 추출
 - (방법) 학생은 집단 면접조사(태블릿 또는 종이 설문지 활용) + 교사는 개별 온라인 조사 진행
 - (기간) '24.8~10월 조사(전체 용역기간: '24.7월~12월)
- (조사내용) 학생은 경제이해력 조사 및 학생 경제교육 실태조사 실시 + 교사는 교사 경제교육 실태조사 진행
 - (경제이해력 조사) 합리적 선택, 수요와 공급, 경상수지 등 핵심 경제개념의 이해도 측정(초·중 20문항, 고 25문항)
 - (실태조사: 학생) 경제지식의 주된 취득경로, 희망 경제교육 방식, 학교 경제교육 시간의 적정성, 희망 학습 내용 등
 - (실태조사: 교사) 경제교육 시간의 적정성, 직무연수 이수 시간, 경제 수업 시 어려움 경험 여부 및 원인, 선호 교육 방식 등

[1] 경제이해력 조사

□ (점수) 초등학교^{6학년} 61.5점, 중학생^{3학년} 51.9점, 고등학교^{2학년} 51.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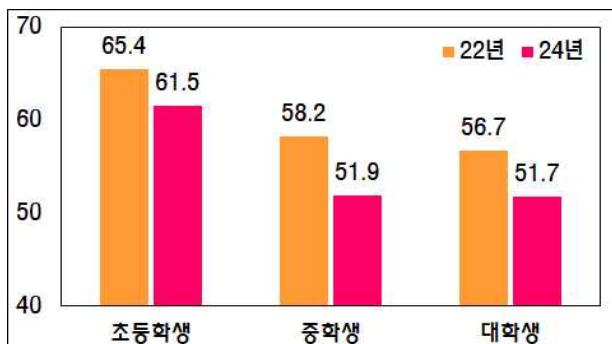
○ '22년 대비 초·중·고 학생 모두 점수 하락(초△3.9, 중△6.3, 고△5.0), '20년 대비로는 소폭 상승(초 +3.4, 중 + 2.1, 고 ±0)

- 점수 하락 원인은 ①설문조사 도구에 따른 응답 성실도 차이*와 ②교육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한 학업 성취도 저하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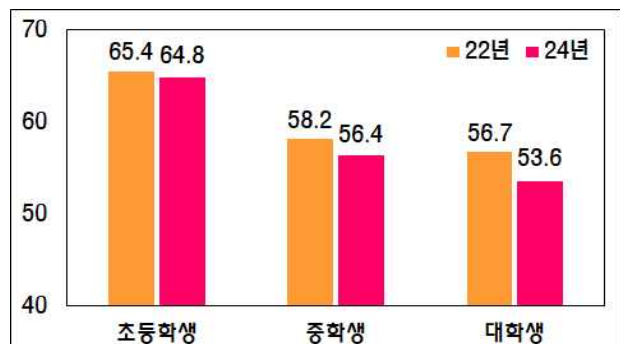
* 학생 집단면접 조사 시 설문조사 도구: '22년에는 종이 설문(100%)으로 하였으며, '24년에는 태블릿(78%)으로 하되 태블릿 사용이 어려운 학교만 종이(22%) 활용
→ '24년 종이 표본 점수가 태블릿보다 높게 집계되었으며(초 +4.3, 중 + 5.5, 고 +3.1), 종이 표본으로만 '22·'24년 비교 시 점수 하락 폭 축소(초 △0.6, 중 △1.8, 고 △3.1)

** 교사 대부분이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평가(초 67.1%, 중 51.2%, 고 65.7%)

'22년 및 '24년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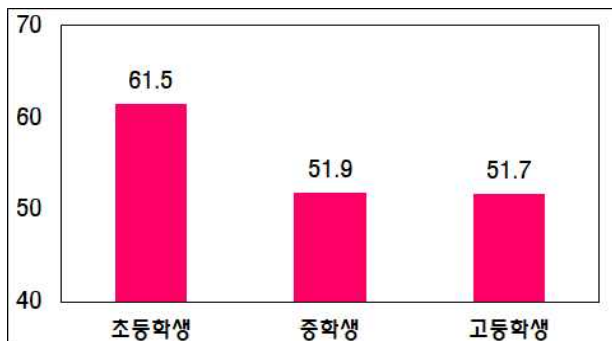


'22년 및 '24년 종이 설문 표본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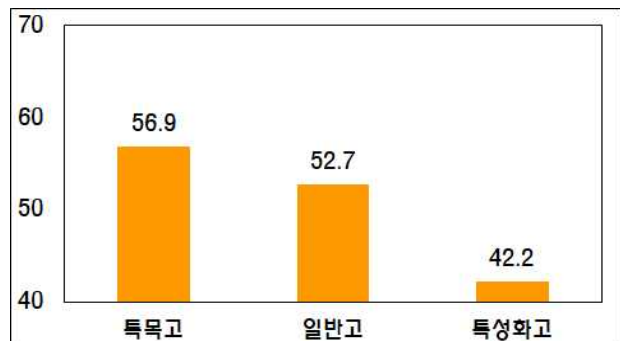


□ (학교 유형별 편차) 고등학교의 경우 특목고, 일반고, 특성화고 순 (특목고 56.9점, 일반고 52.7점, 특성화고 42.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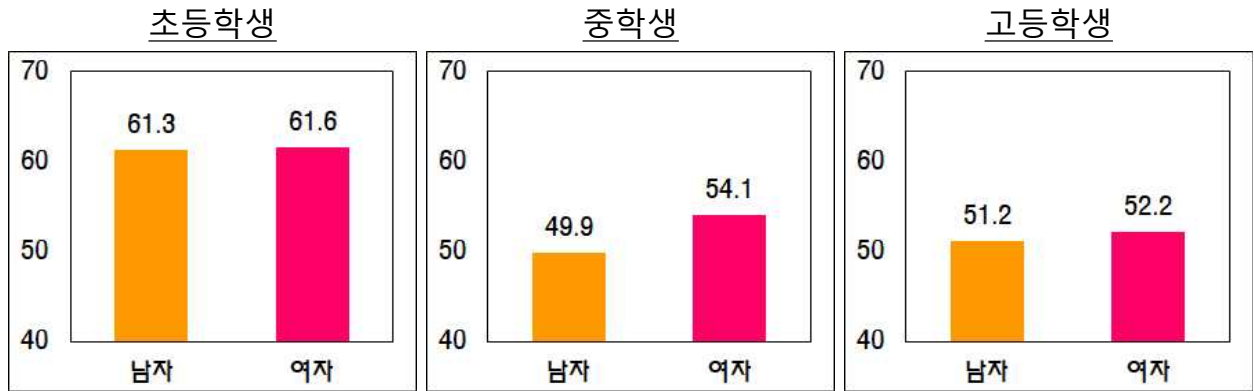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



학교 유형별 점수(고등학교)



- (성별 편차) 중학생은 여학생 점수가 남학생 대비 높고, 초등학교·고등학교의 경우 성별 간 유의미한 점수 차이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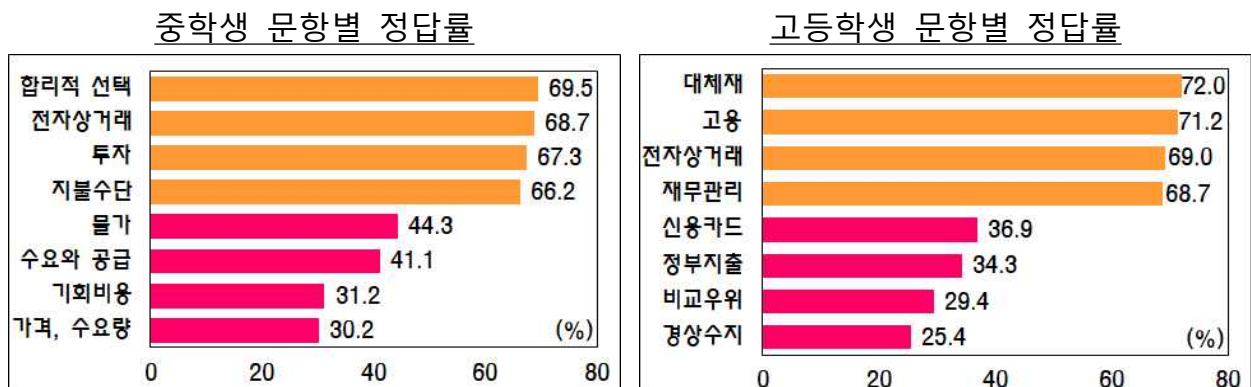
- (지역별 편차) 대체로 특별시·광역시 지역(예: 서울, 대구, 세종 등)이 광역도 지역(예: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보다 점수가 높음

<참 고> 시도별 이해력 점수 상위·하위 5개 지역

구 분	상위 5개 지역	하위 5개 지역
초등학교	대구(68.6), 세종(66.9), 서울(64.9), 대전(64.6), 부산(64.0)	충북(57.5), 제주(56.4), 광주(55.6), 충남(55.0), 강원(54.0)
중 학 생	세종(60.7), 경북(56.6), 대구(55.4), 서울(55.2), 경남(54.6)	경기(49.6), 충북(48.2), 전남(48.2), 강원(45.6), 전북(44.4)
고등학교	부산(57.1), 울산(55.9), 세종(55.7), 대구(54.7), 경기(53.9)	인천(48.5), 경북(47.7), 전북(46.3), 충남(45.7), 충북(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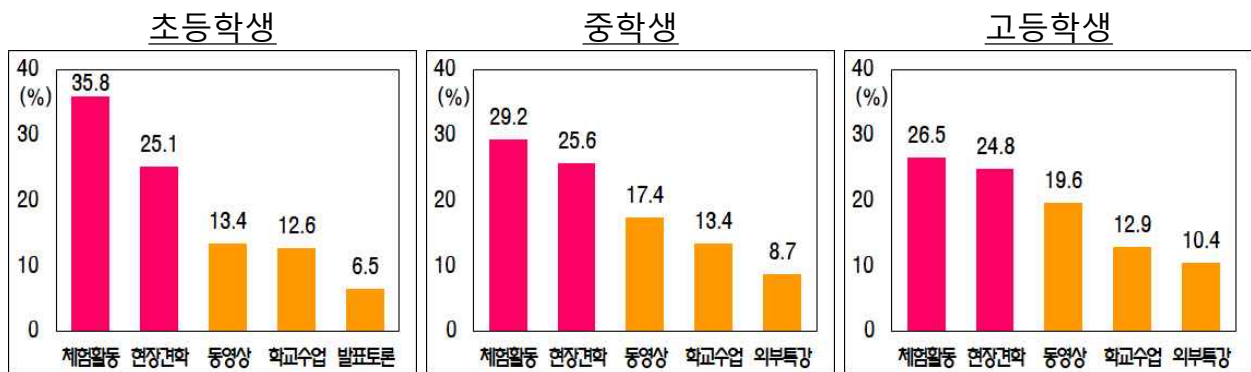
- (문항별 편차) 전자상거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문항의 정답률이 높고, 경제 기본개념·원리 등 문항의 정답률은 낮은 상황

- 중학생은 가격·수요량, 기회비용, 수요·공급, 물가 순으로, 고등학교는 경상수지, 비교우위, 정부지출, 신용카드 순으로 점수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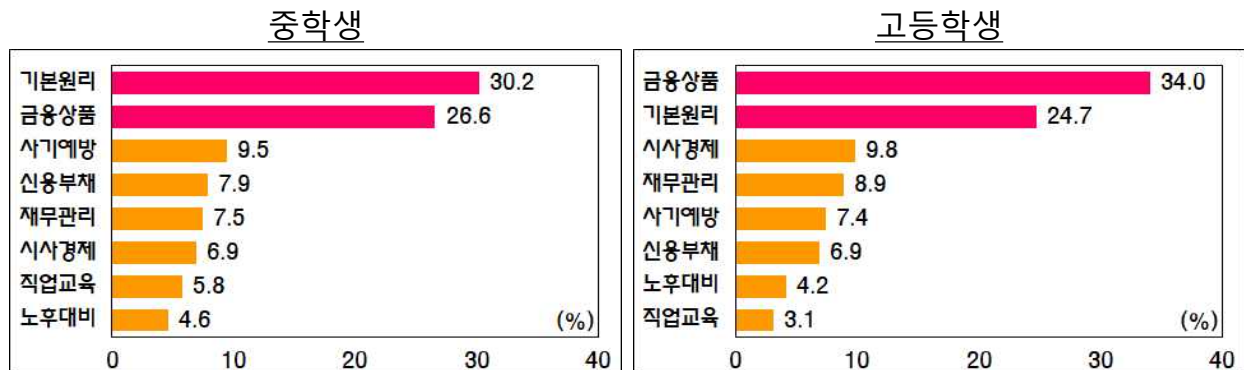


[2-1] 경제교육 실태조사: 학생

- (경제지식 취득경로) 초등·중학생의 주된 경제지식 습득경로는 '학교 수업'으로 절반 수준에 근접(초 47.6%, 중 45.0%)
 - 고등학생의 경우 TV 방송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지식 습득 비중(36.1%)이 학교 수업(32.5%)보다 높음
- (교육시간) 중·고등학생 조사 결과 대체로 학교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중 53.6%, 고 63.6%)
- (희망 교육방식) 초·중·고 학생 모두 강의식 경제교육(학교 설명식 수업, 외부 특강 등)보다는 체험식 경제교육 선호
 - 공통적으로 체험활동, 현장 견학을 각각 1·2순위로 선택



- (희망 교육내용) 중학생은 경제 기본원리와 금융상품을 각각 1·2순위로, 고등학생은 금융상품과 기본원리를 각각 1·2순위로 선호
 - 이해력 조사 채점 결과 가격, 기회비용, 수요·공급, 물가, 비교우위 등 경제 기본개념·원리 관련 문항의 정답률이 낮은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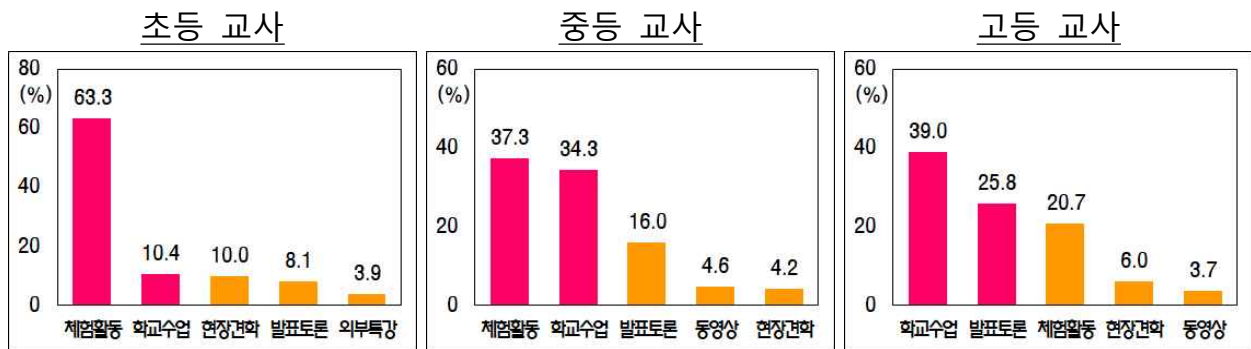


[2-2] 경제교육 실태조사: 교사

□ (수업시간) 초·중·고등학교 교사 과반수가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한 편이라고 응답(초 67.1%, 중 51.2%, 고 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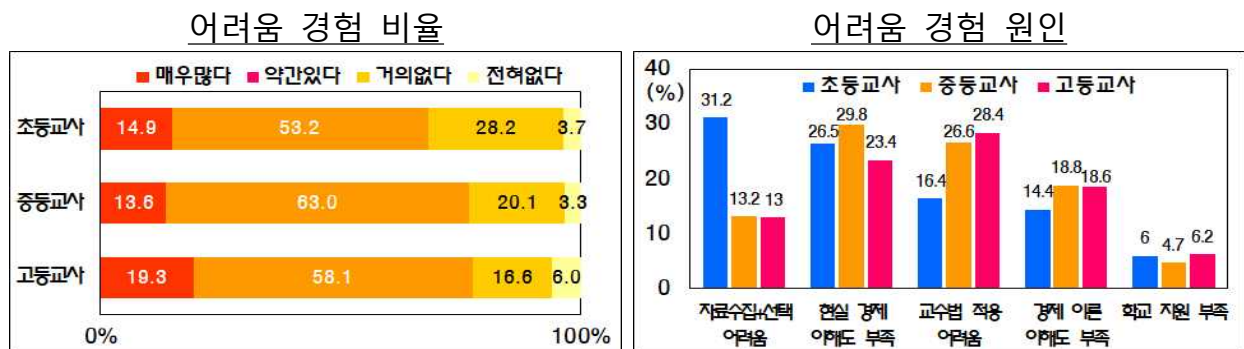
○ 수업 부족 원인 1순위로 모두 '편성 시간 부족' 선정 + 2순위로 初는 '교육 프로그램 부족'을, 中·高는 '입시 위주 풍토' 선정

□ (방식) 초·중 교사는 체험활동, 고등 교사는 학교 수업(설명식)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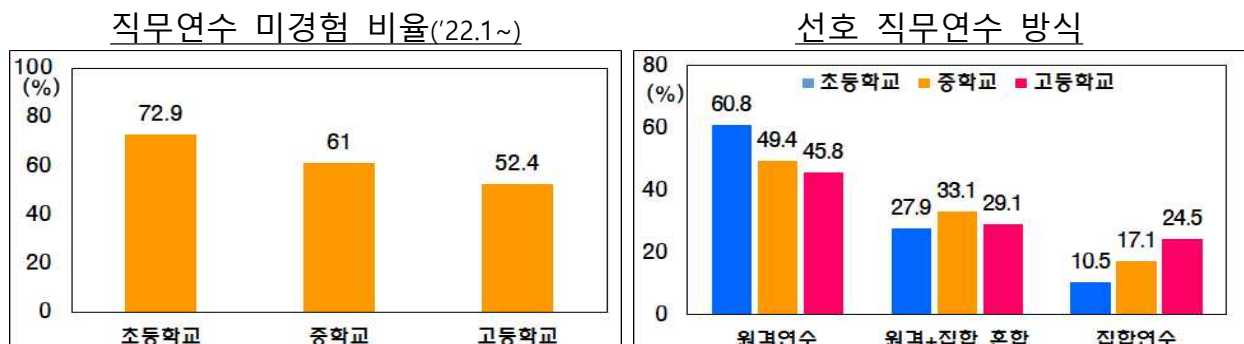


□ (수업 진행 어려움) 경제 수업 진행 시 어려움을 경험한 초·중·고 교사가 다수(초 68.1%, 중 76.6%, 고 77.4%)

○ 원인으로서는 자료수집·교수법 적용 어려움, 이해도 부족 등 응답



□ (직무연수) 과반수 이상의 초·중·고 교사가 '22년 이래 직무연수 경험이 없고, 직무연수 시 대체로 원격 연수 형태를 선호



- (교육 기회 확대) 학교·학교 밖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설·증대
 - (학교) 초등 늘봄학교 경제교육 확대와 중·고등에서의 경제 과목·활동 개설을 추진하여 학교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24년 개시(0.5만명)한 늘봄학교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지역·규모를 확대하여 '25년 1만명, '26년 1.5만명 대상 교육 실시
 - 중·고등 경제교육 강화를 위해 중등 자유학기제 경제활동을 확대 제공하고 고등 신규 경제 과목(교육감 승인 과목)* 개설
 - * 사례 중심의 '경제와 세상' 제작 → '25년 2학기부터 시범 도입
 - (학교 밖) 학생들이 경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형 경제교육을 신설하고 지역 아동·청소년 대상 경제교육 확대
 - 태안 미래융복합 경제재정 교육원('24.11 출범)을 활용하여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경제 캠프 운영
 -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해 학생을 위한 신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취약 지역**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제공 확대
 - * 인터넷 도박 방지 교육 등 / ** 이해력 조사 결과 점수가 대체로 낮은 광역도 지역 등
- (교육 기반 강화) 경제·사회 교과 교사 인력을 양성하고 경제교육 채널을 개선하여 경제교육의 품질 및 접근성 제고
 - (인력)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강화 및 교사들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 전문성 제고
 -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원격 연수 개발 및 우수 수업사례 집합 연수(10개 과정) 제공을 통해 최신 경제 트렌드 전달
 - 교사들로 구성된 경제수업연구회(디자이너스) 개최 지원을 통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수법 개발·확산
 - (채널)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24.6 출범)' 및 유튜브·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
 - 각 기관에 분산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여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경제배움e+'를 통해 통합 제공
 - * (예) 방송사 콘텐츠(다큐멘터리 등), 경제 기본원리·금융상품 주제 관련 콘텐츠 등
 - 경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튜버·SNS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콘텐츠를 신규 제작하고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강화